

멜번대교구한인천주교회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Archdiocese of Melbourne



주임신부 : 윤기선 요셉 (Rev. Kiseun Joseph Youn)
M) 0402 686 560

주 소 : 89 Bond St. Ivanhoe VIC 3079

사목회장 : 최미라 소화 데레사 M) 0404 854 266

사무실 : 월, 수 11am ~ 2pm, 금 11am~3pm

주일미사 : 일요일 오전 11시

Tel: 03 9440 9515, Mob: 0423 532 073

어린이미사: 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kccmel@gmail.com

고해성사 : 주일 미사 15분 전

kccmel@cam.org.au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1시

www.kccmelbourne.org.au

예비자교리: Zoom/대면 교리

[www.facebook.com/ Koreancatholic-church](https://www.facebook.com/Koreancatholic-church)

어린이 안전 & 복지에 관한 문제는 Child Safety Officers (3명)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초대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 38,4-6.8-10

제 2 독서 ㉮ 히브리서 12,1-4

<어찌자고 날 날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예레 15,10).>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화답송

복음환호송 요한 10,27 참조

시편 40(39),2ㄱ-2ㄴ-3.4,18(㉠ 14ㄴ)

◎ 알렐루야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 알렐루야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복음 ㄷ 루카 12,49-53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전례봉사안내

	8월 17일 (일) (녹) 연중 제 20주일	8월 24일 (일) (녹) 연중 제 21주일	8월 31일 (일) (녹) 연중 제 22주일
미사 해설	김지나 노엘라	손은희 크리스티나	박영주 글라라
제 1 독서	청년부	연승재 베드로	박상현 라파엘
제 2 독서	청년부	박영주 글라라	조옥주 안젤라
보편지향기도	청년부	이승은 루시아	홍정민 세실리아
봉헌	3반	4반	5반
성체분배자	정성룡 세레자 요한	김수환 요한	정성룡 세레자 요한
복사	김영광 프란치스코 이성민 다미아노, 이다온 에스텔	김연우 에스더 이준희 발렌티노, 홍세나 가브리엘라	이준희 발렌티노 이재희 마르첼리노, 이애린 에리카
성가	입당 32 봉헌 28, 216	성체 170, 154	파견 29
미사곡	자비송 : 325 아멘 : 377	보편지향기도 : 370 주님의 기도 : 387	거룩하시도다 : 327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90 신앙의 신비여 : 373 하느님의 어린양 : 328

원하는 것(want)인가? 필요한 것(need)인가?

김현웅 바오로 신부 |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하와)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즐겁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창세 3,6)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열매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른 열매에 비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명품’ 열매에 대한 집착이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필요’가 아닌 ‘욕심과 탐욕’으로 범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49-51)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거나, 각박한 세상에서 마음 기댈 곳을 찾다가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단지 마음의 평화뿐이라면, 차라리 정신수련하는 곳에 가서 도를 닦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가난함을 요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하는 결단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열의 의미’입니다. 가족끼리 대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떼어 내지 못하고 움켜 쥐고 있는 많은 집착과 갈라섬(분열)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었더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인데, 신앙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태 10,34) 칼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은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잘라내고자 내가 나에게 휘두르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다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연장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도 좋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분열, 즉 잘라내고 갈라서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결단이며, 말씀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인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거룩한 망나니(?)’가 되어, 예수님께서 주여주시는 칼로 온갖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삶의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비 신자들과 영육간에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날짜	반 봉 사	안 내
8/17	3 반	반 봉사자
8/24	4 반	반 봉사자
8/31	5 반	반 봉사자

♣ 베드로회 봉사 일정표 ♣		
날짜	봉 사	메뉴
8/17	3 반	커피/티/비스킷
8/24	4 반	커피/티/비스킷
8/31	5 반	커피/티/비스킷

◆ 본 당 단 체 모 임 안 내 ◆			
단 체	일 시 및 장 소		문 의
사 목 회	매월 넷째 주일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반장 모임	매월 첫째 주일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대철 베드로 복사단 어머니회	추후 공지		손은희 크리스티나 0433 242 390
마니피캇 성 가 대	주일 미사 전 커뮤니티 홀 10:15am 까지		문소영 소피아 0406 174 746
청 년 부	추후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주일학교	매주 미사 후 커뮤니티홀 및 사제관		임연희 보나 0457 258 066
주일학교 자모회	추후공지		김나영 안젤라 0423 094 789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자비의 모후	추후 공지	+
	천상의 모후	추후 공지	전수련 엠마누엘라 0423 614 598
	위로자의 모후	추후 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성서반	매 주일 Zoom 8pm		왕현경 스텔라 0421 700 386
연령회	추후공지		조옥주 안젤라 0430 282 737
어린이 복지회	추후 공지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이상원 베네딕토 0403 189 387

9월 반 모 임 안 내 요한 3,13-17		
반	일시 / 장소	반장 연락처
1반	9월 13일 (토) 9:00pm Zoom	박비주 세실리아 0430 527 837
2 & 7 반	9월 13일 (토) 6:30pm Zoom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3 반	9월 12일 (금) 6:00pm 신인군 토마스 가정	김장현 라자로 0451 155 551
4, 6, 8 반	9월 14일 (일) 12:15pm 성당 커뮤니티 홀	김수환 요한 0433 800 461
5 반	9월 13일 (토) 7:00pm Zoom	이승은 루시아 0431 208 178
6 & 8 반	4반과 함께	김수환 요한 0430 217 100
7 반	2반과 함께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 우리들의 정 성 ♥			
	7월 27일	8월 3일	8월 10일
헌 금	\$505.75	\$550.50	\$633.85
교 무 금	\$1,000.00	\$1,730.00	\$650.00
감사헌금	+	+	\$1,000.00
합 계	\$1,505.75	\$2,280.50	\$2,283.85
성모동산 기금	\$33,069.51	\$33,069.51	\$33,069.51
☺ 감 사 합 니 다 ☺			

교무금 납부자



김수현 사베리오 & 전수련 엠마누엘라
 박종호 미카엘 & 임은경 유스티나
 김선영 에리카
 남현준 다니엘 & 원선희 안젤라
 김송군 니콜라오 & 정수영 글라라

감사헌금

성재정 클레오파

교무금 납부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은 재정부(박상현 라파엘)를 통하여 책정하십니다.
 0478 510 331 kccm.treasury@gmail.com

- ▶ 교무금은 매 주일 미사 전 성당 입구 테이블, 미사 후 사무실 에서 접수합니다.
- ▶ 교무금을 성당계좌로 보내실 때는 Reference에 보내신 분의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십니다.

A/C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Bank:CDF(NAB) BSB:083347 A/C No: 574926224

◆ 2025년도 사목 방침

‘순례와 친교’

순례) 각 신심 단체별 3, 4, 6, 7, 8, 9, 10월 중 매월, 첫째주 토요일
9월 6일 전례부, 10월 4일 원로회
주소) 225 Hutton Road,
Keysborough, VIC 3173

◆ 오늘의 봉사

미사안내는 3반 입니다.

미사 전) 미사 안내와 간식 준비

미사 후) 뒷정리

◆ 사목회의

일시) 8월 24일(일) 미사 후 1:30pm

커뮤니티홀

◆ 반장모임

일시) 9월 7일(일) 3:30pm Zoom

◆ 2026년도 달력 광고

신청) 8월 3일(일)~24일(일)까지
문의) 사무실, 김도훈 요셉 총무님

◆ 어린이 미사 안내

일시) 매주 12:30pm

대상) 중학생 이하 어린아이들

◆ 예비자 교리 교육

일시) 6월 22일부터 12월 24일 까지

세례식) 12월 25일 (목요일)

교리) 매주 일요일 8pm Zoom

신자분들은 기도와 전교에 힘써주시
기 바랍니다.

◆ 교구 사제 피정

8월 18일(월) ~ 22일(금) 4박 5일간
교구 사제 피정이 있습니다. 신자 여
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ACMI 한국 영화제

일시) 9월 13일-14일

ACMI에서 한국 영화제를 실시합니다.

ACMI에서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
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cmi.net.au/whats-on/kofim-2025/>)



일 시	행 사 일 정	성 당 오 시 는 길 <MELWAY31 D6>
9월 7일(일) 9월 21일(일) 9월 28일(일) 10월 5일(일)	Father's Day 본당의 날 전민족 미사(본당) 전민족 미사(교구)	[250번 버스 (월요일~일요일 운행)] [350번 버스 (월요일~금요일 운행)] 승차: Queen St/ Lt Collins St Lonsdale St, Exhibition St 하차: Oriel Rd 와 Bond St 교차점

< 성당은 '빛의 성작' >

전례상식

성합(聖龕)과 성작(聖爵)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담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성혈을 받아 모시는 그릇인 성작은 컵, 마디, 받침대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컵은 포도주를 담습니다. 받침대는 성작의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며 마디는 컵과 받침대를 연결합니다. 이 때 아래의 오목한 부분은 땅이고, 그 안에 빛을 가득 채우는 빈 부분은 하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당은 그리스도의 성혈을 안고 있는 거대한 성작,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는 거대한 '빛의 성작'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성당에 들어간 우리는 결국 거대한 '빛의 성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성작'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계시는가요? '빛의 성작' 안에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 이 땅의 모든 하느님 백성은 참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p>물리치료 Physiotherapy Clinic 곽민경 비아 0402 048 412</p>	<p>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필라테스: 임산부, 체형교정 코어트레이닝 HICAPS 청구 가능 (GP 소견서, 개인보험)</p>	<p>음악 개인 레슨</p> <div> <div> <p>피아노 하미경 루시아 0420 556 031</p> </div> <div> <p>바이올린 하미현 모니카 0451 996 032</p> </div> </div>
<p>Chimac the Korean Bistro 전영은 카타리나 0415 786 768</p>	<p>K-BBQ & Fried Chicken 95 Upper Heidelberg Rd Ivanhoe VIC 3079</p>	<p>엑심 국제 물류 장석일 에릭 0420 934 061</p> <div> <p>수출입화물 국제운송 및 통관</p> <p>exim@eximex.com.au www.eximex.com.au</p> </div>